

### 나이지리아의 경기 침체 및 실업

Ifeoma Stella Maduem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Nigeria

#### ■ 주요 내용

- 나이지리아의 불황은 저성장, 고금리, 인플레이션,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일본, 미국, 유럽의 경기 침체와 다른 양상을 보임.
- 나이지리아 경기 침체는 원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 농업 분야 경시, 단일계정 정책(TSA), 불충분한 가치 사슬과 교육-노동 시장 간 불일치로 인한 것임.
- 나이지리아 정부는 기업가 훈련 강화, 감세, 수입 대체 조치를 취해왔으나 교육, 농업, 산업 부문의 발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 농업 분야의 투자, 재무 구조 변화, 커리큘럼 개편 등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임.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mailto: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제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이슈 현황

❏ 나이지리아의 불황은 저성장, 고금리, 인플레이션,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일본, 미국, 유럽의 경기 침체와 다른 양상을 보임.

- 나이지리아의 불황은 저성장, 고금리, 인플레이션과 수입어음 증가 및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로 인해 나타남([표 1] 참고).
  - 한편 일본, 미국 및 유럽에서의 경기 침체는 낮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환율의 상승 등 현상을 보이며 나이지리아 불황과는 다른 모습을 보임.

표 1. 2014~2016년간 나이지리아 주요 지표

(단위 : %)

항목	2014	2015	2016
GDP	6.77	2.35	-2.06
설비가동률	53.08	54.7	44.3
생산 성장률	-1.47	-7.0	-3.36
인플레이션	8.0	9.3	18.1
실업률	6.4	10.2	13.3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	36.79	35.76	34.74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	4.14	4.24	4.36

자료: 통계청(2016), 나이지리아 경제전망(2016)

- 나이지리아는 19%의 높은 금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의 대외 부채는 59억 달러(약 7조 원)이며, 대내 부채는 56억 1,000만 달러(약 6조 6,394억 원)임.
  - 외환 보유액은 2015년 293억 6,000만 달러(약 35조 원)에서 2016년 254억 2,000만 달러(약 30조 원)로 감소함.

## 2 원인 분석

❏ 나이지리아 경기 침체는 원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 기인함.

- 80%의 정부 수입 및 95%의 대외교역 수입(收入)이 원유로부터 나오고 있음.
  - 그러나 원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 수입이 급속도로 감소함.
- 그러나 나이지리아 델타 지역의 갈등이 다시 나타남에 따라 원유 생산이 기존 하루 평균 250만 배럴에서 2016년 8월 하루 평균 146.8만 배럴로 감소했음.

### ☞ 더불어 나이지리아 정부가 농업 분야를 경시한 것 역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킴.

- 농업 분야는 고용, 수출 및 산업 원자재 생산과 수입(收入) 창출에 큰 잠재력이 있음. 그러나 농업은 몇십 년 동안 경시되어 왔음.
  - [표 2]는 농업이 나이지리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표 2. 1960년부터 나이지리아의 GDP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기간	농업의 GDP 비중
1960~1964	61.65%
1965~1969	53.27%
1970~1974	39.69%
1980~1984	31.3%
1990~1994	32.55%
2000~2004	33.5%
2010~2012	37.02%
2016	20.3%

자료: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통계국(2012) 및 CIA 세계은행 팩트북(2016)

### ☞ 더불어 재무부의 단일계정 정책(TSA) 시행 역시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됨.

- 단일계정 정책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단일 계정을 통해 모든 소득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는 정책임.
- 이 정책으로 인해 신용 접근 등 재무적인 방법으로 공업이나 농업 등 생산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 결국 은행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여러 지점을 폐쇄함.

## ❏ 마지막으로 불충분한 가치 사슬과 교육-노동 시장 간 불일치로 인한 경기 침체가 발생함.

- 농업 및 산업 분야에서의 가치사슬 형성은 고용 기회를 확대할 것임.
  - 2016년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나이지리아에는 4,000만 개의 추가 고용이 필요할 것이라 언급함.
- 그러나 현재 가치사슬의 수립을 통한 노동 시장 진출에 대한 고려 없이 졸업자 비율만 높아지고 있음.
- 또한, 학교 커리큘럼과 노동 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회사가 신입 사원을 새로 훈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 더군다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 경영 수업은 이론을 강조하여 수료자들의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이는 청년층 실업률, 빈곤,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수요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낮은 상품 수요 및 높은 투입 비용으로 인해 산업 설비 가동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외화 부족, 자본 도피, 낮은 투자, 낮은 생산수준, 유동성 제약으로 인한 높은 자본 비용이 발생하게 됨.
- 기업과 가계가 유동성을 유지하려고 함에 따라 불량채권(NPL)이 증가하고 있음.

## ❏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러한 경기 침체로 인해 2016년 연방 예산 중 7,700억 나이라(약 2조 8,846억 원)를 투입하는 경제 확장 정책을 펼치는 한편, 농업 분야의 성장을 강조하였음.

- 또한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환율 제도를 변경하였으며, 연료 보조금과 외국환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였으나, 아직 이로 인한 성과는 분명하지 않음.

## 3      전망과 시사점

### ❏ 나이지리아 정부는 기업가 훈련 강화, 감세, 수입 대체 조치를 취해왔으나 교육, 농업, 산업 부문의 발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

- 나이지리아 정부는 기업가 훈련을 강화하고, 감세 및 수입(輸入) 대체 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 농업, 산업 부문을 발전시키지 않았음.

**☒ 농업 분야의 투자, 재무 구조 변화, 커리큘럼 개편 등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농업 부문에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 작물의 생산을 증가시킬 계획임.
  -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나이지리아 정부는 예산 중 16%를 농업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재무적인 측면에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정부 규모 감소 및 단일계정(TSA) 정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재무 체계를 안정화하고 유동성을 회복시킬 계획임.
  - 또한, 인프라 발전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통한 투자 환경 조성이 경제활동 활성화 및 총수요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학교의 커리큘럼을 개편하여 교육과 노동 시장의 수요를 일치시켜 청년층의 구직을 돕고 창업 기회 확장을 도모해야 함.
- 또한 수출촉진위원회, 대학, 연구기관, 농민, 산업가들의 시너지를 통해 나이지리아의 농업과 산업 부문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EMERiCs**

**출처**

- Central Bank of Nigeria (2010) CBN Statistical Bulletin, Nigeria: Central bank of Nigeria,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16) NBS : Nigeria: NBS,
- CIA (2016) CIA World Fact book,
- Osali, Peter (2016, Nov. 28) Nigerian economic recession and entrepreneurial revolution. Vanguard,
- World Bank (2016, March 15) More and more productive jobs for Nigeria. World Bank brief.